

고해

각본: 정다훈

1. 골목길 (N/EXT)

경찰 사이렌이 울리고 두 형사가 한 남자를 연행해간다.

연행되어가는 남자는 후드를 뒤집어쓰고 살며시 뒤돌아본다.

2. 장성택의 사무실 (D/INT)

장성택의 사무실에 전화 벨소리가 크게 울린다.

장성택은 사색에 잠겨있다.

장성택의 부하 직원이 장성택을 부른다.

여직원

“사장님 누가 찾으시는데요?”

장성택

“ ”

여직원

“사장님!”

장성택

“아 네네.”

장성택은 전화를 받으러 다가간다.

여직원

“어... 끊었네요?”

여직원

“아 그리고 이거 결재 좀...”

장성택은 서류를 건네는 여직원의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을 넋없이 바라본다.

서류를 잡고는 깊은 생각에 사로잡힌 듯 직원의 손톱을 바라본다.

직원이 조금 불편했는지 서류에서 손을 떼고서야 정신을 차린다.

성택의 뒤에서 다른 부하 직원들이 수근거린다.

부하직원1,2

“사장님 왜 저러신데?”

“오늘 와이프 기일이잖아. 요맘때쯤 맨날 저러셔”

“뭐? 결혼 하셨어?”

“몰랐어? 3년전에 손톱 없는 토막시체 나와서 꽤 시끄러웠잖아. 그게 사장님 와이프래.”

장성택은 일어나 가방을 싸며 먼저 퇴근해보겠다고 한다.

장성택

“먼저 가볼게요. 다들 적당히 하고 들어가봐요.”

3. 성당 (D/INT)

성당에 찬양가가 울려 퍼지고 장성택은 앉아서 멀뚱히 바라보고 있다.

성당 미사가 끝나고 성당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모두가 빠져나간 공허한 성당으로 장성택이 자리에 앉는다.

혼자 자리에 앉아 장성택은 기도를 시작한다.

장성택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제 아내를 하나님께 위탁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를 애처롭게 여겨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신의 아내를 위한 기도를 하며 목주를 넘기고 있다.

기도에 열중하고 있자 젊은 신부가 말을 건다.

신학교 다닐 적 함께 다닌 동기다.

신부

“형제님. 저희 성당 청소 시간입니다.”

장성택

“미안합니다.”

신부

“됐다. 커피나 한잔하자. 나와”

4. 성당 앞 벤치 (N/EXT)

신부

“몇 년됐지?”

장성택

“3년”

신부

“그래? 꽤 됐네.”

장성택

“그러게. 성당 외관 수리했더라.”

신부

“그래. 웬 미친 놈이 십일조를 그렇게 내는데 뜯어 곧쳤지.”

장성택

“잘했네”

신부

“아 저번에 누가 너 찾더라”

장성택

“그래? 누군데?”

신부

“누군지는 몰라. 너 돈 많다는 소문 듣고 온 시민단체겠지. 뭐”

5. 화장실 (D/INT)

장성택이 문을 열고 화장실로 들어온다.

장성택은 세면대 앞에 서서 세수를 하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

오택동

“저기요? 밖에 누구 있어요?”

장성택

“네? 네. 있는데 왜...”

오택동

“죄송하지만 휴지 좀 주시겠어요?”

장성택은 옆에서 휴지를 뜯어 건넨다.

오택동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장성택

“아닙니다.”

오택동

“목소리가 익숙한데...혹시 째신부님?”

장성택

“네?”

오택동

“아...제가 또 말실수를...신학교 출신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부르더라구요. 이 시간까지 성당에도 남아계시고 신앙이 아주 깊으신가봅니다.”

장성택

“아닙니다.”

오택동

“그전에도 몇 번 뵈었는데 이제서야 말 붙여봅니다?”

장성택

“그러십니까? 저는 좀 바빠서 그럼.”

오택동

“선생님?”

장성택

“네?”

오택동

“아. 호칭을 뭐라 해야할지 몰라서...잡신부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택

“그냥 편할대로 하십시오.”

오택동

“저 부탁 하나만 합시다.”

장성택

“웬니까?”

오택동

“제가 보기보다 죄가 많습니다. 가슴에 성부와 성령으로 가득하신 분이 이 중생 놈 고해 한번 받아 주시겠습니까?”

장성택

“신부도 아닌 제가 어찌...게다가 여긴 고해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택동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이다. 아멘.

같이 안 하십니까?”

장성택

“...”

오택동

“보기보다 냉정하십니다.”

오택동

“저는 살인자입니다. 3년정도 됐을까요? 한 사람의 아내를 칼로 찢고 들킬까봐 겁이나 토막내 하천가에 버렸습니다. 어찌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침묵이 흐른다.

장성택

“왜 이제 와서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오택동

“두려웠습니다.”

장성택

“누구야? 당신 누구길래 나한테 이러는거야?”

오택동

“내 이름 기억하려나? 넌 똥택이가 더 익숙하겠네.”

장성택

“너 설마 오택동이냐? 지금 뭐하는 거야? 이제와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오택동

“다행히 기억은 나나 보네. 성택아.”

6. 오성택의 회상 (D/INT)

장성택과 친구들이 오택동을 잡고 있다.

장성택은 문신 기계를 오택동의 몸에 들이민다.

장성택

“가만있어봐. 이게 얼마짜린줄 아냐?”

오택동

“제발 성택아.”

택동의 몸에 낙인을 새기는 성택의 손목에는 십자가 팔찌가 채워져있다.

7. 화장실 (N/INT)

장성택

“그 때 일은 내가 미안하다. 졸업하고 몇 번이나 너네 집 앞에서 서성였어. 우리 얼굴보고 얘기하자. 이 문 좀 열어봐.”

오택동

“미안해? 정말 미안한거야?”

천천히 한 쪽 다리씩 무릎을 꿇는 장성택. 눈은 화장실 문을 노려보고 있다.

장성택

“그래. 나 이렇게 무릎도 꿇었어. 제발...”

오택동

“(택동은 기가 찬 듯이 실소한다) 성택아. 받아.

오택동은 문 밑으로 손을 뺀다.

장성택은 손을 떨며 오택동의 손에 잡힌 것을 건내 받는다.

장성택은 휴지에 감싸진 손톱을 보면서 흐느낀다.

오택동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멘”

천천히 오택동이 들어있는 화장실의 문이 열린다.

장성택이 칸 안으로 달려 들어가 오택동의 목을 조른다.

오택동은 아무 저항하지 않고 웃는다.

오택동

“성택아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속이야.”

오택동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고 잠시 후 경찰이 들이닥치고 연행해간다.